신한은행은 기본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더해 구독서비스, 아파트 관리비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 비용을 체크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소소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는 주식 기업공개(IPO) 일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숨겨진 정부지원금 찾기, 재직 이력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 행은 외화 자산을 불려주는 '환테크 챌린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나와 비슷한 자산을 가진 같은 연령대 고객의 소비패턴, 재테크 유형을 소개하는 '고수의 랭킹' 서비스를 비롯해 여유자금 저축, 연말정산 준비 등 서비스를 준비했다.

하나카드는 카드사의 강점을 활용해 리뷰나 별점이 아닌 실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핫플레이스'를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변 상권 데이터, 승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맛집, 카페 등의 단골 비중, 방문 추세, 방문객 특성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비씨(BC)카드는 기본 서비스 외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과소비에 '경고'를 하는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또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경제 · 금융 · 재테크 관련 상식이 담긴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